



우리의  
家章

#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 八世祖 靑城君 漢城左尹 胡襄公 諱 順徑 事蹟(上)



호양공 묘소

### 胡襄公 神道碑銘

沈氏は 계보가 靑松에서 나와 여계(麗季)에 드러났고 我朝에 들어와서는 가장 성대하였다.

휘를 덕부(德符)라 하는 분이 있었는데 벼슬이 특진(特進)하여 보국승록대부 좌정승 청성백(輔國崇祿大夫 左政丞 靑城伯)이 되었는데 이분이 공에게는 고조가 된다. 휘 溫을 낳으니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부사(大匡 輔國崇祿大夫 領議政府事)로 곧 우리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버지이며 공에게는 증조가 된다. 휘 회(滄)를 낳으니 수충보사정난익대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 청송부원군 증시 공숙공(輸忠保社 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 靑松府院君 贈諡 恭肅公)이니 이분이 공의 祖父이다. 휘 원(源)을 낳으니 봉렬대부 내자시판관(奉列大夫 內資寺判官)으로 순충적덕보조공신 가선대부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純忠積德補祚功臣 嘉善大夫 吏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에 추증되었는데 곧 공의 아버지로 공의 벼슬 때문에 증직된 것이다.

어머니는 貞夫人 李氏로 본관이 完山이고 중군부사정(中軍副司正)의구(義丘)의 따님이며 종실 의안대군

화(宗室 義安大君 和)의 증손이다. 天順 6년(1462) 임오 12월 초6일 공을 낳았다.

공의 휘는 순경(順徑)이요 자는 가준(可遵)이다. 어려서부터 준자(俊資)가 있어 놀이할 때도 범상한 아이들과는 달랐다. 공숙공(恭肅公)이 친히 집에서 길러 사랑을 쏟았고 시서를 가르쳤다. 성장하자 말달리고 활 쏘는데 절륜(絶倫)했으며 홍치임자(弘治壬子:1492)년 武科에 탁발되어 2년 뒤 甲寅년에 선전관(宣傳官)으로 선발되었다가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으로 배명됐고 이어서 동래현령(東萊縣令)을 지냈는데 지적(治績)이 있었다.

만기가 되자 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로 옮기고 장례원사의(掌隸院司儀)겸 내승(內乘)으로 승진하였다가 이어서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로 전직했다. 甲子年(1504)에 사용원점정(司饗院僉正)이 됐다가 副正으로 승진하고 절충(折衝)을 가작(加爵)했다.

이때에 연산주(燕山主)의 황란(荒亂)으로 인하여 위변(圍邊)의 어마(圍馬)를 때렸는데 왕의 미움을 사서 연일현(連日縣)으로 장배(杖配)됐다. 을축년에 크게 옥사(獄事)가 일어났는데 公또한 잡혀와서 옥에 수금(囚禁)됐는데 상국 이행(相國 李荇)이 역대의 史書를 주어



묘비

읽게 하였으므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병인년(1506)에 우리의 성상(聖上)께서 反正하자 공에게 추대하는데 참모한 공이 있다고 해서 병충분의익운정국공신(秉忠奮義翊運靖國功臣)의 호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가선(嘉善)의 계(階)에 승진시킨 뒤 靑城君에 봉했다. 이때에 경상병사(慶尙兵使)에 궐원(闕員)이 생겼는데 조정에서 적합한 사람을 얻기 어렵다고 해서 특히 공에게 節度使를 배명했다. 공은 병졸을 무마하고 변방을 방어하는 데 있어 모두 적절하게 처리하니 時論이 많았다고 한다. 만기가 되자 君을 봉했다.

기사년(1509)에 외간(外艱)을 만나서 服을 마치자 다시 군을 봉하고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을 겸하게 하였다. 임신년에 전라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로 배명되었으나 어머니 이씨가 연로하여 죽을 때까지 봉양할 것을 청하니 교체되어 다시 군에 봉해졌다. 갑술년(1514)에 경상도 좌병마절도사(慶尙道左兵馬節度使)에 배명되었으나 이듬해인 乙亥년에 어머니 李氏의 상을 당했다. 신사년(1521)에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경사(京師)로 갔고 병술년(1526)에 또 正朝使가 되어 두 번째 경사로 갔다.

### 알림

#### 大同世譜 예약 및 배송에 관한 건

##### 一. 大同譜 예약

대동본은 예약분 외에 餘分으로 인쇄한 七百질 중 현재 여분이 二百여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필요하신 분은 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책대금: 二十二萬원)

##### 二. 譜冊 예약 만료기간 설정

예약일하고 잔금 納入이 되지 않아 보관되어있는 帙수가 七百여질에 달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입장 이 못됨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한을 설정 하였습니다.  
마감기한: 二〇〇三年 六月 三十日

##### 三. 보책 引受가 지연될時

보책 예약은 하였으나 아직 인수를 하지 못하였거나 일 정기간 지연될 것이라 생각되시는 분은 일단 그 상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宗會에서는 그 현황 파악 이 필요한 때입니다.

##### 四. 配送중 발생한 오류통보 요망

다음과 같이 오류가 있는 분이 즉시 大宗會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잔금납부는 하였는데 보책을 아직 받지 못한 분  
2. 신청질주보다 더 많이 받았으신 분  
3. 보책이 부분적으로 바뀌어 配送된 분  
이상과 같이 공고하오니 착오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二〇〇三年 一月 二十日  
靑松沈氏大宗會 會長 沈明求

- 연락처: 〇二-三三六七-七八五七·三三三三-七八九七
- 팩스: 〇二-三三三九-七七五五

##### 보책대금 납부처

농협을지로 4가지점 〇八四-〇一一-七九三-四  
우체국 ( ) 〇一〇四四-七-〇一-〇〇二六九五

예매주: 심명구





허락하지 않은 일을 인용하여 석복유안(惜福遺安·김소하게 생활하여 복을 오래도록 누리도록 함)의 도를 아뢰었고 사치의 폐단을 말하여 비단옷 입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또 궁녀가 절에서 기도하는 폐단과 무당이 성문(城門)에 나오라고 피어 속이는 일을 말하여 엄중하게 금단(禁斷)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 사원(祠院)에서 모람(冒濫·버릇없이 어른에게 덤빔)을 못하게 하시고 공포(貢布·세금으로 내는 베)를 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가납(嘉納)하고 참으로 맞는 말이고 빈 말이 아니라 하였다. 갑오년에 영의정겸 세손사(世孫師)와 호위대장(扈衛大將)에 승진되었다. 十一月에 순조(純祖)가 승하(昇遐)하자 원상(院相·왕이 죽은

뒤 잠시 정무를 행하는 임시벼슬, 왕이 죽은 후 세자가 즉위는 하였으나 상중이므로 졸곡까지의 스무엿새 동안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제상급(元老宰相級), 또는 원임자(原任者)가 이것을 맡게 함의 일을 맡게 되었다. 지금의 임금 즉 헌종(憲宗)이 즉위하자 공이 제일 먼저 기거(起居)를 삼가하는 것, 강학(講學)을 부지런히 하는 것, 궁궐을 엄하게 지키는 것, 행문(倖門·요행의 문)을 막는 것, 민은(民隱·백성의 괴로움)을 살피는 것, 재용(財用)을 절약하는 것 등 여섯가지 조항을 반복하여 말하였고 실심(實心) 두 글자로 여섯가지 조항의大本(大本)을 삼아 힘쓸 것을 말하였다.

을미년에 기사(耆社)에 들어가서 병들었으므로 한가히

있는 것을 빌며 여러번 아뢰었으나 국장(國葬)이 끝난 뒤에 비로소 허락되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임명되었으며 정유년 중전(中殿) 가례(嘉禮·성혼)에 도감(都監) 도제조(都提調)에 차임(差任)되었고 일이 끝난 뒤에 말을 하사받았고 앞서 정승이 되기전에 향역(享役), 숙직, 돈장(敦匠·감독) 찬진문자(撰進文字)와 정조, 순조 익종의 사진을 만들어 올린 공로로 말을 하사받은 것은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고 역임한 관청이 열리고 도제조는 약원(藥院), 묘서(廟署), 금영(禁營), 주원(廚院), 무고(武庫)였다.

- 다음호에 계속 -

독립운동가 沈熏 ③ (1901~1936)

殉國(月刊)에서

3.1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선생이 단재와 우당을 만난 것이다. 이 시기 단재와 우당은 일제와 어떠한 형태의 타협도 거부하는 절대독립론, 독립운동 방략으로 무장투쟁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임시정부에서 나와 북경에서 천고(天鼓)라는 잡지를 발행하며 임정의 외교 독립운동노선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분들과의 만남은 선생에게 절대독립에 대한 각오를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선생이 일제와의 어떠한 형태의 타협도 거부하며 열정적으로 민족독립을 부르짖는 주옥과 같은 항일 문학작품을 남겼던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선생은 상해 남경 등을 거쳐 절강성 항주(杭州)의 지강(芝江)대학에 입학하여 선진학문을 수학하였다.

지강대학 유학 중 특이한 점은 연극에 관심이 컸다는 것이다. 이는 1923년 중국에서 귀국한 선생이 최승일, 나경손, 김영팔, 임남산 등과 신극연극단체인 극문회(劇文會)를 조직하여 활동한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아마도 연극이 갖는 역동적인 대중 호소력에 끌렸던 것 같다. 1927년 선생이 직접 각색 감독하여 <먼동이 틀 때>라는 영화를 만들고, 또 자신의 대표작인 <상록수>를 영화화 하려고 한일도 같은 이유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1924년 선생은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입사하였다. 이제 비로소 선생의 뜻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는 지면을 갖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생의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거기에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1926년 첩필구락부(鐵筆俱樂部) 사건으로 동아일보를 퇴사하게 되었다.

첩필구락부는 1924년 11월 각 신문사 사회부 기자들이 만든 언론운동단체였다. 1925년 4월 첩필구락부는 같은 언론운동단체인 무명회(無名會)와 공동으로 奎朝鮮 기자대회를 개최하여 일제의 경계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사회부 기자들은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하여 신문사 경영진의 비위를 거슬렀다. 나아가 이듬해에는 일제의 언론탄압에 항의하여 언론

옹호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첩필구락부는 해산되었고 거기에 참여하였던 다수의 기자들도 신문사에서 쫓겨났다. 바로 이때 선생도 동아일보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선생이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에서 물러난 직후인 4월 26일 옹희황제가 붕어(崩御)하였다. 선생은 이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경술국치 직후 황제에서 李王으로 격하되어 거의 유폐되다시피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옹희황제에 대한 슬픔이 일제를 향한 분노로 폭발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직감할 수 있었다. 광무황제(高宗)의 붕어가 3.1운동의 한 계기였다면 이번 옹희황제의 붕어 또한 그와 유사한 독립운동의 폭발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1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선생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4월 29일 옹희황제의 국장이 준비되고 있는 돈화문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시<통곡 속에서>를 지었고 5월 16일자 시대일보에 발표하였다.

<통곡속에서>

큰 길에 넘치는 白衣의 물결 속에서 울음소리 울어난다. 총검이 번드이고 군병의 말굽소리 소란한 곳에 분격찬 무리는 몰리며 짓밟히며 땅에 엎디어 마지막 비명을 지른다. 땅을 두드리며 또 하늘을 우러러 외치는 소리 느껴주는 소리 구소(九:하늘)에 사무친다.

검은 땀기들인 소녀여 눈송이같이 소복 입은 소년이어 그 무엇이 너희의 작은 가슴을 안타깝게도 서름에 떨게 하더냐. 그 뉘라서 저다지도 뜨거운 눈물을 어여쁜 너희의 두 눈으로 자아내라 하더냐.

가지마다 신록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종달새 시내를 따르는 즐거운 봄날에 어찌하여 너희는 벌써 기쁨의 노래를 잊어버렸는가. 천진한 너희의 행복마저 차마

어떤 사람이 빼앗아 가던가.

할아버지여! 할머니여! 오직 무덤 속의 안식밖에 희망이 그친 노인네여! 간밤에 주름잡힌 얼굴은 누르렀고 世苦에 등은 굽었거늘 창자를 쥐어짜며 애통하시는 양은 차마 뵈기 어렵소이다.

그치시지요. 그만 눈물을 거두시지요 당신네의 쇠잔한 백골이나마 편안히 묻히고자 하던 이 국토는 이방(異邦:일본)사람의 호미가 살살이 파헤친 지 이미 오래거늘 지금에 피나게 우신들 한번 간 옛날이 다시 돌아올 줄 아십니까?

해마다 봄마다 새 주인은 인정전(仁政殿) '사구라' 그늘에 잔치를 베풀고 이화(梨花)의 휘장은 낡은 수레에 붙여 티끌만 날리는 폐허를 굴러다녀도 기억은 망각의 OO(나라)를 찾나니 日後란 뉘 있어 길이 서러나 하라미는 오오, 쫓겨가는 무리여 쓰러져버린 한낱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말라! 덧없는 인생 죽고아미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거니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함을 굳이 서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오오, 그러나 철천(徹天)의恨을 품은 청상(靑孀)의 설움이로되 이웃집 제단(祭壇)조차 무너져 하소연 할 곳 없으니 목 맺혀 울고자 하니 눈물마저 말라버린 억색(抑塞)한 가슴을 이 한날에 두드리며 울자! 이마로 흙을 비비며 눈으로 피를 뺨으며!

- 다음호에 계속 -

김포중회 임오년 4/4분기 이사회 개최

김포중회는 2002년 12월 3일 4/4분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임원 30여명이 김포시 북변동 우식식당에서 임오년의 마지막 회합을 가졌다. 세월은 유수 같다더니 올 한해도 눈 깜짝 할 사이이지나고 말았다.

젊어서는 시간이 안가서 세월이 지루하게 느껴지더니 육십 고개를 넘고서는 시간이 초고속으로 가는 느낌이다.

이백은 추포가에서 "거울에 비치는 이 서리 같은 흰 터럭은 대체 어디서 얻은 것일까?"라고 자탄하였으며 주자는 "세월은 나를 위해 기다려 주지 않는다. 아! 늙었도다. 이 누구의 허물인가?" 라 하였다.

깊이 새겨볼 금언이다. 본중회 공식 행사로는 2002년 10월 20일(음 9월 15일)40여명의 종인이 연천군 미산면 4세조 청성백묘소 추기 제향에 참례하였고 비공식으로는 10월 24일(음 9월 19일) 본시 통진면 8세조 사인공 묘소 11월 3일(음 9월 29일)본시 대곶면 9세조 수찬공 묘소, 11월 10일(음 10월 5일) 파주시 광탄면 7세조 판관공 묘소, 11월 21일(음 10월 17일)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예곡리 공숙공 양부 강주부공묘소 추향에 참례하였다. 새해에도 현조묘소 춘추제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송조정신을 선양하여야겠다. 또한 본 중회 산하 11

세조 신천공 묘역의 택지개발사업이 종인 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시설 이전 환경영향 평가문제 등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으나 예측불허의 상태이다. 우리는 모든 힘을 합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88세의 상윤고문이 우렁찬 목소리로 김포중회의 무궁한 발전과 종인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하는 건배제로 회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새해인 계미년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공:김포중회)



### 계미년을 맞으면서



감사 심 두 섭

2003년(계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종인 여러분의 강녕하심과 댁내 제절이 두루 만강하심을 앙축합니다.

작년에는 국가의 큰 행사가 많았었다. 먼저 한.일 월드컵대회(5,31-6,30)에서 4강이라는 신화를 창조하였으며, 이어서 지방선거(6,13), 국회의원보선(8,8), 부산 아시안게임(9,24-10,14), 대통령선거(12,19)를 무사히 치러 성숙된 민주시민정신을 선양하였다.

또한 우리 문중의 숙원사업인 청송심씨 대동세보(경진보)를 4년여의 진통 끝에 출간하였다.

본 세보는 1545년(을사보)에 창간되고 그 후 10회에 걸쳐 속수하니 이번 경진보는 11회의 속간이다. 그간 대동세보 간행에 작.간접으로 참여한 모든 종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의 역점사업은 연천군소재 4세조 청성백묘역 재실 건립과제이다. 그간 대동세보 간행에 주력하다보니 본 사업이 다소 미진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구미시 소재 5세조 안효공 제2자 공숙공양부 강주부공 묘역의 정화사업에도 직계손은 물론 방계손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계미년(1883년:고종20년)은 임오군란으로 인하여 국권이 크게 훼손된 해였으며 60년 전의 계미년(1943년: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퇴하기 시작한 해였다.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도 잃는다는 냉혹한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금년에도 변함없이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문중의 융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중회 감사 심 두 섭

### 대중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심 상 호

한 시대가 가면 또 다른 한 시대가 오듯, 어느덧 戊午年 한해는 가고 癸未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戊午年에는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찾아온 癸未年 새 해에는 宗人들간의 반목의 골을 길게 하는 것은 일 들일랑 훌훌 털어 버리고, 宗人間에 和睦하고 大小事에 亨通하는 한 해가되기를 기원해봅니다.

20만 청송심문의 오랜 숙원사업인 大同世譜 庚辰譜의 간행은 문중 사에 길이 빛날 대중회의 위업이라 생각되며 4년여에 걸쳐 불철주야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참여하지 않은 종파가 있음은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청송 심문의 대표기관인 대중회가 새롭게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구를 축소개편하고 인적구성도 재편하여 저 비용 고 효율의 대중회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 중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유사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는 전제로 임원 개선을 한 뒤 운영위원회는 없고 회장

단 몇 사람이 모여 종사와 종재 관리를 의결 처리함은 현실에 적합한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지역 종인 2인 이상을 포함하는 종재관리 전담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5處 山所 종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현재까지는 지역 종재 실태도 정확히 파악 치못하고 회장단 몇 사람의 소신에 의해서 좌우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중회가 종재를 집중 관리하면서 현지와 동떨어져 실정에 밝지 못하고 인력 부족과 공부관리 태만으로 종재 손실을 초래하여 더러는 송사에 얽혀 수고롭게 하고도 성과는 미진하니 전권을 위임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지역 중회에 위임 분산 관리함이 안전하지 않음 까도, 생각해 봅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수호관리 증식 할 수 있고 또한 종재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송사로 인한 낭비를 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중회가. 청송심문의 화합과 융성 발전을 위해 전심 전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회가 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조직원이 새롭게 구성되고 운영방법과 종재 수호 관리 방법이 새롭게 모색되어 진정 문중 사를 청사에 빛날 청송심씨 대중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淸州淸原宗會 副會長 相昊

## 沈영감 심민섭



監事	慶載萬	斗燮	副會長	會長	顧問	二〇〇三年 癸未年	南서울宗會 任員名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故 沈仁輔氏靈前에

봄바람 부는 철에 시름걱정 더하시고  
가을비 차가운 날엔 더한 한숨 쉬시더니  
千萬里 먼먼 길을 어이 그리 가시는가.

곧고 곧은 天性에 부처 같은 마음이라  
겹겹한 波瀾에 많은 曲折잡어 두고  
九十年 한平生을 마감하고 가시는가.

江原道라 寧越땅 깊은山 酒泉골에  
紅顔少年 꿈을 품고 오르내린 大靑山도  
남기신 님의 자취 더듬어 그리는 듯합니다.

北邱山을 돌고돌아 酒泉江에 恨을 품고  
가시는 저승결에 曼陀羅꽃 고우리니  
못 다한 꿈을 안고 편히 가소서.

二〇〇三年一月二日 舍弟 雲輔 光哈

註 · · 仁輔 筆者의 舍兄.

曼陀羅꽃 極樂世界에 피는 꽃.

大靑山 故人의 普通學敎時節 지게지고  
나 무하러 오르내린 酒泉의 名山.

故人은 家庭의 貧困과 나라의 乘運이 委  
奴와 그의 앞잡이 扈從 들의 所行으로  
알고 大靑山에서 民族的인 鬱憤을 삭이  
곤 하였다.

# 宗 事 消 息

## 17世祖淸獻公 諱宅賢秋享奉行

11월 10일(음: 10월 첫째 일요일)

初獻: 明用 宗孫  
亞獻: 大平 忠南道知事  
終獻: 揆喆 永川公宗孫  
大祝: 寬錫 大宗會總務

## 安孝公配位 順興安氏 忌辰祭奉行

12월 27일(음: 11월 24일)

初獻: 應鎮 大祝: 相榮  
亞獻: 相德 執禮: 相稷  
終獻: 好燮 執事: 彥村應植



## 11世祖 松公諱喜壽影幀포쇄祀

11월 29일(음: 10월 25일)

初獻: 鴻圭 宗孫 大祝: 海燮  
亞獻: 承龍 派宗會會長 執事: 承淵 成圭  
終獻: 彰來 前 宗會長



## 谷城宗會 龜巖祠 淨化事業

구암사는 7世祖 忘世亭公 諱:璿, 10世祖 霽湖亭公 諱:光亨, 12世祖 杜巖公 諱:敏謙, 13世祖 龜巖公 諱:敏覺, 4位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써 지난 2002년 4월1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정성 드려 정화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이는 鎭植會長님과 愚慶總務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아울러 道, 郡費가 지원 된데 따른 것이다.



▲ 구암사 전경

### ▶ 공 사 내 역 ◀

- 1. 진입로 포장 300 m
- 2. 주차장 포장 250평
- 3. 內三門 重建 5평
- 4. 齋室담장 140 m
- 5. 축대공사 160 m

- 곡성중회 제공 -

## 새 정부를 맞을 재미년 머리에서



부회장 심 영 구

동양에서는 요순(堯舜) 시절을 유사이래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며 전형적인 태평성대로 꼽고 있습니다.

왕의 계승은 부자세습제도도 아니며 부정한 수단으로 표 몰이 하는 다수결의 선거제도도 아닌 덕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제위를 물려주었으니 도덕정치의 표본이랄 수 밖에도.

그렇건만 물려받을 사람이 오히려 사양하느라 피해 다녔습니다. 제위를 주겠다는 말을 들은기가 더럽혀졌다고 맑은 냇물에 씻습니다. 그 왕위선양의 소리를 들은 부정한 귀를 씻은 물이라 해서 소에게도 그 냇물조차 먹이지 않던 세월이니 당시 제왕의 어진 덕화(德化)와 평화로운 사회의 기풍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다음의 격양가는 50년 제위를 한 요임금이 민정을 살피고자 들을 거닐자니 한 노인이 배를 두들기며 발을 갈며 부른 노래입니다.

### 격양가 (擊壤歌)

민요 (작자미상)

日出而作 : 해뜨면 일찍 나가 논밭을 갈고 (일출이작)

日入而息 : 밤이면 집에 와서 편히 쉬누나 (일입이식)

鑿井而飲 : 우물 파 물 마시니 걱정없는데 (착정이음)

帝力何有於我哉 : 그까짓 제왕이야 알 바 없어라. (제력하유어재)

“백성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낮에는 들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 쉬며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며 밭을 갈아 배부르게 먹으며, 즐거운 생활을 하니 임금의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를 모른다. 도무지 관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지 않으니 제왕이 내게 무슨 상관이라더냐.”

권력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세월이니 참으로 태평성대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혹한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예기(禮記)』에 나오는 설화도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을 지나가고 있는데 길가의 무덤 가에서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그 내막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오래 전에는 시아버님께서 호랑이에게 잡혀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는 남편이 호환(虎患)으로 죽었고 옛그제는 아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일이지 여기 살면서 계속 호환을 당하십니까?”

“이곳에서는 관리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지 않으니 어찌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는 “너희들도 명심하거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3대를 호랑이에게 잡혀 먹고도 이 나라를 떠

나지 않는 까닭을 알겠느냐.”

가정맹어호란 나라의 가혹한 정치를 비유한 말입니다. 정치는 원래 백성을 편안히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본인데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고 무지한 백성을 억박질러서도 안됩니다. 공연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 백성의 인기를 얻고 치적(治績)을 세우려고 해도 안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들들 볶아서도 안됩니다.

죄를 석워 구습혁파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백성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안됩니다. 결국 백성에게 맺힌 원한이 군주에게 되돌아간다는 역사적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제왕의 간섭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을 위한 간섭하지 않는 위민(爲民) 정치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요임금의 어질고 은혜로운 정치가 물 흐르듯 순리로 이루어져 백성과 임금이 동화가 된 참된 자유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상적인 정치를 논할 때를 일러 요순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건만 어찌된 까닭인지 지금껏 처처에서 권좌를 머슴의 자리인줄을 모르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모시고 친자식처럼 사랑한다면 백성은 임금을 부모처럼 섬길 것입니다. 처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세자(勢者)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며 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별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안거 낙업(安居樂業)입니다. 즉, 백성이 자기 직업에 즐겁게 종사하며 편안히 살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런걸 공연히 뭔가 공을 내세우려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업적을 보이려고 세금을 무겁게 하며 국고를 축내고 권력을 뒤흔들고 있다면 그 정치에 대해 염증을 냅니다. 그렇건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여 명성을 남기려 듭니다마는 바로 이 치적이란 공명심이 백성을 들볶는 겁니다.

‘고법안온(古法安溫)’이라고 해서 ‘백성은 익히 몸에 밴 옛 법에 정이 간다’고 했고 ‘옛 법 없애지 말고 새 법 내지 말라’고 한 것은 선불리 개혁한다고 칼자루를 휘두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잘

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게 덜 불안하며 적응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제왕의 힘이 내가 알게 무엇이냐 바로 이 말이 지선 지미(至善至美)의 이상적 정치며 백성을 위한 정치입니다.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봉사하는 정치입니다.

벌써 동양에서는 수수천년 전부터 천하는 천하의 천하요, 한사람의 천하가 아닌 모든 사람의 천하(天下, 天下之天下, 非一人之天下)라는 민본(民本) 정치를 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상정치는 어떻게 되어 세월이 갈수록 일그러진 모습으로 비친다면 인본(人本)과 덕본(德本)정치의 후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중회 부회장 심 영 구

## 토막소식

大宗會에서는 지난 1월 16일 中區 筆洞 대림정 식당에서 고문님과 지도위원, 회장단, 有司임을 모시고 茶菓會를 열고 癸未年 새해맞이 交禮會를 가졌다.



<태학산문선>

광주판관 태등 심노송(1話)  
(廣州判官 泰登 沈魯崇)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태등(泰登)으로 효종때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沈之源)의 7대 손이다.

부친은 영조(英祖)와, 정조(正祖) 연간의 文臣이며 정변록(定辨錄)이란 당론서를 남긴 심낙수(沈樂洙)다. 1790년 진사가 되었으나 1801년부터 6년간 경상남도 기장에 유배되는 등 정치적 격랑 속에 불우한 장년기를 보냈다. 해배된 후 줄곧 포의(布衣)로 지내다가 50대 중반에야 음직(蔭職)으로 노성현감(魯城縣監), 천안군수(天安郡守), 광주판관(廣州判官), 임천군수(林川郡守)등을 역임했다. 문집 효전산고(孝田散稿) 58책(유배일기 20책 포함)을 남겼고 야사총서 대동패림(大東裨林)을 편찬했다.

\* 대중회 문화부에서는 태학사에서 발행한 태학산문선 심노송의 산문을 종보에 연재로 게재하여 300년 전 시대의 산문을 심노송선조의 글을 통하여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 문화부 -

함께 은거하자고 부른 노래  
(偕隱屏跋)

딸 아이가 제 어미의 상자를 정리하다가 내가 쓴『해은가』(偕隱歌)를 찾았다. 그 끝에는 '신해년(辛亥年) 7월 27일' 이라고 날짜가 쓰여 있었다. 이것은 아내가 병중에 벼게말에다가 놓으려고 계획한 작은 세 폭 병풍으로, 그림 두 폭에 나의 이『해은가』 한 폭을 합하여 구성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글만 먼저 이루어지고 그림은 미처 마련치 못하였던 것이다.

아, 이는 이른바 규방의 즐거움이요 한묵(翰墨: 서화와 문필)의 유희(遊戱: 즐겁게 놀다). 이『해은가』를 짓고 그 뜻을 번역하

여 읊어 아내에게 들려주었던 그때 일이 지금도 기억난다. 아내 는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인 가운데 누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뜻이 너무 고맙습니다. 다만 함께 은거하는데도 법도가 있으니 달관귀인(達官貴人: 세속을 벗어난 높은 식견을 갖은 귀인)이 되어 부부가 함께 안빈낙도(安貧樂道: 몹시 곤궁하게 살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리를 지키)하던 일을 잊다면 달관귀인을 지속하기 어렵고, 부부가 안빈낙도하면서 달관귀인 되기를 사모한다면 안빈낙도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 하였다.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감탄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를 어찌 알았소?"

아내는 웃으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다만 세상 사람들을 보건대 귀함에 처하여 천함을 미워하는데 끝내 천하고자 해도 그리될 수가 없고, 궁함을 싫어하고 영화를 사모하나 영화를 얻지 못하고 궁함만 더욱 심해지니 이로써 알게된 것입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왕안석(王安石)의 아내보다 뛰어나건만 내게는 왕안석만한 뜻이 없으니 그게 걱정이구려" 라 하며 서로 웃었다. 슬프도다, 이 말도 이제는 훌쩍 옛일이 되고 말았으니. 아내는 평소 행실이 겸손하여 뽐내는 빛이 전혀 없었다. 내가 혹 어떤 일에 대해 물으면 번번이 말하기를, "아내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설령 안다 하더라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 하였다.

평소 과묵하여 무능한 듯 보였지만 천성이 지혜롭고 이치에 매우 밝았으며 말도 조리있게 잘하였으니 왕왕 뛰어남이 드러나는 것이 이와 같았다.

나는 품성이 성기고 게을러 출세하려는 뜻이 적었다. 과거공부에 힘썼으나 지금까지 이룬 것이 없어 아내로 하여금 하루도 편안하게 해주질 못하였건만 아내는 이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었다. 다른 이의 영달을 보고도 전혀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뜻이 없었다.

이러하기에 저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 이제는 그 말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 이른바 '함께 안빈낙도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빼어났던 아내의 뜻은 이에서 그치고 말았으니 운명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내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아내의 운명이 박한 것이 아니요, 나의 운명이 박한 것이다" 라고 말한 까닭이다.

화공(畫工)을 시켜 그림을 완성하고 『해은가』를 붙이고 또 지금의 이 글까지 붙여 도합 4폭으로 만들었으니 내 자리 곁에다가 늘 둘 것이다. 아내는 비록 죽었지만 이것을 마주하고 늘 아내와 대화하면서 생을 마친다면 거의 아내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지요, 이를 보는 자들은 또한 나와 아내가 부부이면서 봉우의 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壬子年(1792) 8월 19일 - 끝 -

주(註)

심노송은 와병 중인 아내를 위안하기 위하여 함께 은거하자는 내용의 『해은가』를 지어 주었다. 아쉽게도 원문이 현재 전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발문을 통해 대략의 정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한 딸은 심노송과 전주이씨 사이에 난 3녀 1남 가운데 유일하게 요절하지 않은 둘째딸이다. 이듬해 초추씨(趙秋氏)가 죽자 심노송은 『망실실기』(亡室實記: 상처실기)를 지었는데 이를 언문으로 다시 옮겨 이 딸에게 간직하게 했다고 한다.

\* 옮긴이 김영진(金榮鎭) \*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논문으로 효전 심노송 산문연구(1997) 효전 심노송론(1998) 조선 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1998) 등이 있다.

理監總	副會顧	○ 清州·清原宗會
事事務	會長長問	
惠載琦龍載揆載相成載	輔文變澤喆完龍昊輔哲	○ 任員名單 ○
亨載元元義	輔成變澤輔	
揆性	載載星	中來
	載載星	寬變
	載在好	載覺
	駟祿植	

철잎은 빠꾸기네들(上)

- 月岳 沈晟求 -



沈晟求

나는 빠꾸기 울음소리를 좋아한다. 신록이 어우러지는 계절에 혼자 산길을 가다가 빠꾸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여운에서 생의 어떤 운치를 느끼는 것 같아 발을 멈추고 나무에라도 기대서서 그곳을 바라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생태를 알고부터는 빠꾸기가 미워졌다. 어미는 남의 등지에 알을 낳고, 새끼는 깨어나자마자 눈도 뜨지 못한 것이 남의 알을 두 번 세 번 안간힘을 다하여 등지 밖으로 밀어내어 떨구고, 남의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성장하는 그 과정은 살생이요, 삶 그 자체가 사기 행위로 일관되는 존재이니, 어디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당한 것인 양하는 그 생리가 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진다.

남이야 어찌 되었건 나만은 살아야 하겠다는 독존의 사상은 천부적인 것일까. 그것이 아무리 하늘의 섭리라고 하더라도 섭정하다. 숨털도 나지 않은 빨간 핏덩이가 며칠만 있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부화 직전의 남의 알을 죽지를 벌리고 등꼬리로 밀어내던 화면이 영영 지워지지 않는다. 종족 보존을 위하여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하느님은 빠꾸기를 통해서 시사한 것일까.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는 말도 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빠꾸기 소리는 어릴 때부터 평화로운 친근감으로 귀에 익은 고전관념 때문인지 아직도 그 여운은 잠재적으로 남아있다.

내 집 앞에는 개울이 흐른다. 그리고 맑은 편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그 산기슭 구릉에는 마리아의 집이 있다. 규모도 상당하여 크고 작은 현대식 건물이 대여섯 채나 되는데 본관 건물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밤에는 붉은 색으로 먼 곳에서도 보인다.

나는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 산책겸 등산겸 오르내리기에 꼭 알맞은 산이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 부근 주민들의 대부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삼삼오오 자주 오르는 산이다 내가 이곳으로 옮겨 온 지도 만 삼 년이 된다. 그런데 이곳을 지날 때면 가끔 예비수녀(?)들을 만난다. 어떨 때는 두서너 명, 때로는 대여섯 명이부근 담 밑에서 해바라기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뒷산 언덕 잔디밭에서 거닐기도 한다. 옷차림은 그저 수수한 평복인데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하다.

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과계」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을 떠올리게 된다. 수녀가 되려고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속정의 단절과 엄격한 규율, 힘에 겨운 일과를 참다 못하여 수녀원을 떠나는 줄거리의 영화였다. 뼈를 깎는 노력과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과 근면, 오직 천주만을 생각하는 일념 없이는 이루어 낼 수 없는 위대한 삶이기에 나는 비구스님이나 신부님보다도 수녀님이나 비구니를 더 존경한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님의 하얀 머리의 노안을 그려본다. 돈으로 베풀기는 쉬우나 평생 마음을 주고 사랑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다음가는 존귀함이라 나는 믿는다.

더욱이 물욕으로 범벅이 된 요즘을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함인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해인 수녀를 생각한다. 영구가 고향인 그는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의 테레사 수녀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시집을 가끔들쳐 본다. 나의 여자 제자 중에 수녀님도 몇 분이 있고, 중도에 파계한 제자도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서인지 이 수녀원을 지날 때마다 제자 수녀님들도 생각나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 예비 수녀님(?)들을 그대로 지나쳐지지 않는 마음에서 항상 아쉬움 같은 것이 뒤를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마도 피정을 왔다 간 것이라니 하는 생각도 했다.

그들과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말을 건넬 수는 없는 일이었고, 그렇다고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도 만무한 일하기에 어서 그들이 속세의 티를 벗고 단정한 수녀의 모습과 해맑은 표정으로 바뀌어지기를 은근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곤 했다.

- 다음호에 계속 -

▷ 약력 ◁

- 충북 제천 출생
- 감사담당 장학사
- 月岳 沈晟求
- 중등교장
- 단국대 국어국문학과졸
- 창작수필문인 회원
- 강원도 내각고등학교 교사
- 강원문인협회 회원
- 교육연구원 연구사

# 현대 가정예절과 미래사회의 기대 (上)



沈 星 求

**효가 천지의 원리에 근거하는 보편적 원리이며 절대적인 인성임을 밝힌 것이다. 효(孝)는 부자(父子)간의 윤리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천성인 본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하나가 되어 일체감이 형성되는 이상적인 경지를 이룰 수 있다.**

## 1. 예의 본질과 이성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와 학문과 서예를 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예의 개념은 상당히 많은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의 개념은 절하하는 데에서 시작되고 나타나는 것이다. 논어에서는 예를 인간 행동의 원칙으로 보고 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고 하였다.

예는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이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하여야 하고, 상례는 형식적으로 잘 치루기 보다는 차라리 슬퍼하여야 한다." 논어에 있는 말이다.

'예'란 공경 지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모여 있을 때도 상하(上下)가 있다. 주인과 손님이 절을 할 때도 공경하는 사람이 먼저 절을 하고 서로 존경 할 때에는 같이 절을 해야한다. 이는 예절이, 형식이 주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가 천지의 원리에 근거하는 보편적 원리이며 절대적인 인성임을 밝힌 것이다. 효(孝)는 부자(父子)간의 윤리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천성인 본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하나가 되어 일체감이 형성되는 이상적인 경지를 이룰 수 있다. 부모가 자애(慈愛)로써 자식에게 다가가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고 교육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자식이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자식도 부모의 잘못을 간하여 부모가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예(禮)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며 인의예지의 성선(性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1. 가정예절의 의미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왔고 나로부터 자손에게로 물려지는 영원한 것이다. 가정은 나라와 사회라는 방대한 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인간들이 원초적인 대인관계를 이루는 사회생활의 출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예절과 개인예절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가정예절은 모든 예절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 2. 가족의 범위

가정예절은 가족 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먼저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

## 3. 가정예절 확립의 필요성

음식물을 먹는 데에도 차례가 있고 남녀가 만나는 데에도 분별(分別)이 있는바, 만사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예(禮)요 만물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악(樂)이다.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큰 일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예(禮)와 악(樂)을 갖추어서 의리(義理)를 세우며 살아야 한다.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기쁨의 길이기도 하다.**

과거 전통적 대가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오늘날의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결혼가정이 늘어나며 가정 내에서 상호 존중의 예가 파괴되는 현실을 자주 본다. 자식이 아버지를 해치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며 어떤 질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가정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에 비해서 탈선행위와 학업 중도포기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분야의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결혼가정의 어린이가. 성장하여 결혼할 경우, 이들의 이혼율은 일반가정 출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이것은 예가 행해지지 않는 가정을 경험한 아이가 그 무질서를 다시 생산해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가정은 사랑하는 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자기하고 화목한 가정의 삶을 유지하는 안식처이다. 가정은 참된 사랑과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격형성의 장인 것이다. 건전한 가정이라야 올바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와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건전한 성장과 건전한 국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정은 필연적인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파주문화원 부원장 심성구

# 청송심씨 심한성 효자정려 (靑松沈氏 沈漢成 孝子旌閭)

다음은 孝子の 정려(旌閭)를 세워 달라는 절목(節目)의 초안(草案)입니다.

임금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지난번에 경기도 유학 이병순(京畿道 幼學 李秉淳)과 그 가족, 고을 사람들이 진정을 하였으니 이 진정내용을 보니 金浦에서 살던 옛 병절교위 심한성(秉節校尉 沈漢成)의 孝行을 기리기 위하여 정려를 건립하여 줄 것을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沈漢成은 영의정 沈澣의 9世孫이며 파조 순문공(派祖 順門公)의 7世孫으로서 선천적(先天的)인 효성을 타고 났고 겸하여 문학으로도 유명하였습니다.

나이 겨우 일곱 살에 양친부모를 모두 여의고 어렸기 때문에 상제노릇을 못한걸 평생동안의 슬픔으로 삼았습니다.

장성하여 6년동안을 마음속으로 상제 노릇을 하며 버릇을 입고 나물밥을 먹으며 날마다 부모의 무덤에 올라가 미친 듯이 펄떡 펄떡 뛰며 가슴을 치고 통곡(慟哭)하기를 어느 사람 초상때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하며 그 상기(喪齊)가 다시 돌아오면 상복과 수질 요질(首腰)을 갖추어 입고 러막(廬幕)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외 한결같이 제례(祭禮)를 준수하였으며 고향사람중 조실부모한 사람을 보면 늘 눈물을 흘리며 불쌍하게 여겼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도 깨우쳐 주었으니 이와같은 沈漢成의 효행 실적이 탁월하게 남들과 달랐으니 특별히 정려를 세워 주시는 은전(恩典)이 아마도 속세(俗世)를 교화(教化)시키는 풍습에 합당 하다고 봅니다.

신등(臣等)이 마음대로 편한데로 할수도 없으니 전하(殿下)께서 결제하여 주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광서(光緒)13年윤4月 초3日 동부승지 윤길구(同副承旨 尹吉求)는 전하께서 내리시는 교지(教旨) 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정려를 세울 때 재목과 목수 장인(匠人)들을 준례(準例)에 의하여 거행하여 주시고 沈漢成의 자손들에게는 호세(戶稅)와 부역(賦役)은 물론 여러 가지 잡역(雜役)도

일체 면제하여 주시는 것이 전하의 성덕(聖德)이라고 사려됩니다.

光緒13年(1887年) 閏4月 日  
草案을 만든 사람  
판서 김만식 수결 (判書 金晩植 手決)

## 2003년은 기쁨과 영광만 있기를

200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심 용 규

동쪽바다에 붉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祈願하였습니다. 다가올 癸未年은 매사가 亨通하도록 하여주시고 우리 門中에는 榮光과 행운을 내려 주옵소서. 天地神明께 말하는 心情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지난 壬午年이 너무나 어렵고 슬퍼서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한 것 같습니다.

世上萬事를 항상 樂天的으로 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이지만 그러나 지난 壬午年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해도 그리 없으리라.

흔히들 "多事多難했던"이라는 말들을 잘 사용 하지만 나아말로 그 어렵고 힘들었던 많은 일들을 몸소 겪으면서 마치 十年처럼 지루한 한해를 살지 않았던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은 본인의 不德한 所致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러나 佛家에서는 人生의 삶 그 자체를 苦海라고 한다던가, 마치 佛子가 苦行을 하듯 나 또한 苦惱에 찬 한해였던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은 또 다른 밝은 아침을 마치하기 위한 것이듯 어김없이 또 癸未年의 새아침은 밝아왔습니다. 가슴 알았던 곳은 날들은 다 물러가 버리고 希望이 살아 넘치는 癸未年!

家族에게는 幸福을, 一家들간에는 和睦을, 우리 大宗會에는 慶事가 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나는 헌신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小門中에서는 일이 하나 생겼다. "見物生心"이라던가 눈앞에 재물이 있으니 어찌 마음이 동하지 않겠는가 마는 그래도 우리는 祖上 앞에 최소한의

양심만은 지키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 後孫들 모두는 일심단결하여 그것만이 우리 宗中이 永久히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宗人 여러분!  
우리 宗會에선 작년 한해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우선 族譜가 完成되었음은 우리 全宗族의 慶事이고 청송심씨 사적비를 세우고 각처에 爲先事를 하는등의 많은 일들이 成就됨은 대중회의 업적으로, 그래서 나는 大宗會會長님을 비롯하여 全任員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리고 존경하는 바입니다.

大宗會는 今年에도 더 많은 일들로 우리 沈門을 빛내 주시고, 그리고 全宗人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2003年 1月 20日  
靑松沈氏 舍人公宗會總務 啓 圭

## 바다와 포구

매섭기만 한 삭풍  
쓸쓸한 계절  
원초적 적막감에 싸인  
바다와 포구의 풍경

새들 평화로운 날개짓  
설국에 눈발로 변한  
텅 빈 벌판  
눈과 바람이 가득

바람에 주렁주렁 매달린  
황태가 시계추마냥 흔  
해변에 마을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



- 심 황 섭 -



## 통정대부 수 광주부윤 심공행장 ⑥

벗이 가난하여 늘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거늘 공이 밥상에 맛있는 반찬이 한가지라도 있으면 문득 거두어 보내 주었다. 종친과 친구간에 빈궁하면서 말할 곳마저 없는 사람들이 공에게 보급의 의뢰를 자기 집과 같이 하였으니 공이 의리를 중하게 여기고 재물을 가버어 여겨 옛사람의 풍토가 있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믿고 자신하였다.

일을 만나서는 하는 데에 용감 하였으며 일의 시비를 의논함에는 구차하게 그치거나 간사한데 따르지 않았다.

관직에 임해서는 공지를 갖고 근엄하여 남에게 억압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굴곡이 많고 가식이 있는 사람을 보면 문득 면전에서 나무라되 그 사람이 낮을 붉히 드라도 그치지 않았다. 오직 사람을 허여하여 마음으로 기약한 사람은 涼熱(그 사람의 세력의 성함과 쇠함) 存沒(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써 두 가지로 보지 않았으니 이러한 것으로서 사람들의 존중하게 여기는 바가 되었으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며 마침내 원한을 품고 죽게 되었다. 구사의 機務에 매우 밝고 통달하여 고금의 전법을 모두 소바닥을 가르키듯 밝고 쉬었으니 비록 감옥에 갇혀있

는데에서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가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다시 기용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 영남지방 將士들이 공을 얻어 장수로 삼는 것을 더욱 원하였으니 共이 한 시대에서 받았는 위엄과 덕망이 이와 같았다.

공이 이름난 가문의 자제로 행실을 가다듬고 명예를 세웠으며 널리 보고들어 지혜가 뛰어났으니 문장과 지모가 족히 임금의 정책을 모의할 수 있었고 군사의 지략은 족히 나라의 간성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忠節大義는 이미 일찍이 드러났으니 공의 재능으로 하여금 당시에 크게 쓰여 졌더라면 위대한 功業을 세워 그 명성이 역사에 길이 전해졌겠거늘 겨우 조그마한 고을에서 시험하다가 몸을 다했는데도 재앙을 당하였으며 지혜를 다했는데도 의혹을 받았다. 독한 화살이 갑자기 날아왔으며 사실 무근한 참소로 범망에 걸려 귀양길에 올라 독한 연무속에 온 가족이 화를 입었다. 당시에 공과 서로 아는 사람으로 재상이 지위에 있으면서 공의 애매한 죄명을 씌워 주려고 애쓴 사람들이 없지 않았으나 원수들이 반복 참소하여 끝내 다시 쓰여지지 못하고 신령한 말이 마당에 었드렸듯

좋은 칼이 못에 잠겼듯 뛰어난 자질이 영원이 잠겨 버렸고 기이한 기질로 끝내 막히고 말았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포위되어 외로운 성이 시간이 촉박할 즈음에 공이 일개찰방이었으니 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할 책임이 없었는데도 오백명도 안되는 군사를 이끌어 창을 메고 바로 전진하여 신명을 바쳐 임금에게 보답할 것을 맹세 하였으니 그 쌓은 바 의리와 경윤이 과연 어떠하였겠는가. 공을 봄에 어찌 공의 가문에 조그마한 실오라기 같은 이익으로서 스스로 더럽힐 사람이 있겠는가. 불꽃처럼 맹렬하던 비방도 참소도 지금은 이미 썩은 흙이라. 재능을 애석하게 여기고 원통함을 슬퍼함에는 세상에서 아무런 이설이 없었으니 비유컨대 화살에 붙은 파리오 옥에 묻은 때와같이 씻으면 그만일 뿐이다. 어찌 족히 공에게 누가 되었는가. 다만 한스러운것은 세상에 좋은 옥으로 장식하고 고량진미를 포식한 살천 몸으로 公卿大夫가 되고 길이 형통하여 세상을 마친 사람이 많았거늘 공은 손을 씻고 봉직하여 한낱 티끌의 더럽혀짐이 없었는데도 자기일신에 대한 모책이 주밀하지 못하여 가문이 재앙을 만나 모진 서리가 여름에 내려졌고 원통한 요기가 밤에 쏘여왔으니 아! 화가 따라온 유래였다. 이어 썩어 뜻있는 선비들이 슬퍼하고 한탄함을 그칠 수 없는 바가 아니겠는가.

- 다음호에 계속 -

### 人 事

- 元燮: 한국 안전공사 전북지역 본부장
- 熙元: 하나은행 부행장보
- 蓮圭: 하나은행 영업부장(구 하나은행 본점)
- 日燮: 감사원 교육과전 이사관
- 愚燁: 신한 카드 영업기획 본부장
- 相正: 건교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사무국장
- 載興: LG 전자 상무
- 永燮: 강원도청 자치행정 국장
- 賢燮: 한국 신용정보 관리사업 기획팀장
- 豊植: SGI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 鉉慶: 건설 공제조합 업무이사
- 鉉常: 현대 삼호 중공업 이사
- 健植: 대한 적십자사 경기도 혈액 원장
- 載達: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대전지사
- 載元: 현대 아산 개성사업단 부사장
- 晶燮: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면허(경감)
- 日輔: 삼성 물산 전무

### 理 事 會 費

부 회 장	庚周	500,000	2002	안성
지도위원	勳鍾	600,000	2001~2	서울
	相禹	300,000	2002	서울
	大平	600,000	2001~2	대전
감 사	相稷	300,000	2002	수원
	斗燮	300,000	2002	서울
이 사	曜安	80,000	2002	광주
	憲燮	80,000	2002	광주
	勝俊	80,000	2002	광주
	堯燮	80,000	2002	광주
	駿求	80,000	2002	인천
	相學	80,000	2002	쌍문
	大植	80,000	2002	인천
	蓮澤	160,000	2001~2	청송
	明輔	240,000	2000~1,2	김포
	相龍	160,000	2001~2	수원
	載政	160,000	2001~2	전주
	鍾默	80,000	2002	군산
	仲根	80,000	2002	아산
	載萬	80,000	2002	불광동
	仁植	80,000	2002	오류동
	承元	80,000	2002	충주
	載金	80,000	2002	정능
	相鴻	80,000	2002	삼척
	應斌	80,000	2002	안양
	宗玉	80,000	2002	수원
	明王	80,000	2002	불광동
	堯澤	80,000	2002	영등포
	贊求	80,000	2002	분당
	載求	80,000	2002	삼척
	沈憇	80,000	2002	울산
	應輔	80,000	2002	울산
	永澤	80,000	2002	남가좌동
	武錫	160,000	2001~2	논현동
	文錫	80,000	2001	일산
	光澤	160,000	2001~2	안성
	相璟	80,000	2002	
	昌燮	80,000	2002	일원동
	喆鏞	80,000	2002	예천
	鍾赫	80,000	2002	대중회

### 성금감사합니다

仁植	50,000	오류동	재운	30,000	수원
재운	30,000		능본	30,000	삼척
홍석	30,000	미아5동	재무	50,000	진천
沈憇	20,000	울산	相鎬	30,000	榮州
재춘	20,000	화곡동	규섭	30,000	의왕
중섭	20,000	월계동	환규	100,000	진주중회
유섭	20,000	사우동	大燮	50,000	忠州
상유	20,000	철원	相文	50,000	흑석동
광섭	50,000	남산타운	수용	100,000	영암
홍보	50,000	창원	南서울宗會	100,000	
인섭	50,000	삼척	昌來	50,000	천안
창섭	50,000	고창부안	태식	30,000	곡성
용출	50,000	고창부안거창			
광주	500,000	斗岩宗會			
彦祥	30,000				

#### \* 特別誠金 \*

五燮 100,000 영암

### 축 격

제44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동영. 봉석. 영대.  
우섭. 종신. 형석. 혜진

### 부 고

심철호 :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회장  
2002, 12, 24일, 지병약화로 별세(당63세)  
유족 : 부인. 金都  
자 : 載學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이동복 지관장  
딸 : 姪垠 사진작가

### 宗報 38호에서 誤字訂正

6p.에서 修撰公宗會 時享奉行 獻誠金中  
安孝公宗會 300,000원 誤記로 삭제  
6p.에서 判官公 時享奉行 獻誠金中  
信川公派 春川宗會 100,000을  
春川 淸澤 100,000원으로 정정

### 송 금 안 내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중회 심명구
-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중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체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중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011-829-5548